

## 2. 사랑-두려움을 이기는 성품

### 성령의 열매(2) 사랑 – 두려움을 이기는 성품 고린도전서 13 장 4-13 절

#### 1. 하나님의 속성 –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개혁주의 전통의 신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the Attributes of God)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의 ‘개혁교의학 개요’라는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란 무엇입니까?

**비공유적 속성(the Incommunicable Attributes of God) –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존재이기에 다른 피조물들과 공유할 수 없는 속성들, 예를 들면, 독자적이심, 불변하심, 영원하심, 편재하심 등**

어려운 용어를 사용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이것은 다른 피조물들이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속성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어떤 것인지 짐작이 되시죠.

**공유적 속성(the communicable Attributes of God) –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속에 거하시며, 그들과 관계하시고, 그들이 제한적으로 소유한 모든 덕목들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리킴**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들 사이에 뭔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랑, 지혜, 능력, 의로움, 은혜, 자비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피조물들도 이런 속성들을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그런 덕목들을 갖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어떤 속성에 해당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속성, 그게 성령의 열매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 2. 사랑-두려움을 이기는 성품

첫째, 성령의 열매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둘째,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아니라 비공유적 속성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등과 같은 성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영원하심, 전능하심, 편재하심,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런 시도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공유한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다다를 수 없는 것들입니다. 헌데 인간은 자꾸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타노스나 아이언맨과 같은 히어로 영화를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인간이 영원한 존재, 전능한 존재, 편재한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결코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 2. 사랑이란 무엇인가 – 사랑의 정의

자, 이제 사랑이라는 열매에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먼저는 각 열매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열매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열매의 위조품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누어서 전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이라는 열매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 장 7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리고 8 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이 덧붙여집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니까.”  
네가 큰 민족이기때문에,

## 2. 사랑-두려움을 이기는 성품

네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네가 대단하기 때문에,  
네가 외모가 빛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그냥 너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아무 근거가 내 안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면, 우리가 결코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 고린도전서 13 장 5 절을 보십시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단어를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내 유익과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진 진정한 사랑의 절반입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이 뭐니까?

4 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7 절에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은 견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을 위해 오래 참고 견디는 일입니다. 오래 참고 견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상대방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보다

## 2. 사랑-두려움을 이기는 성품

분명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이란 내 필요와 유익보다 다른 이들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 자신을 개방하고 희생하는 성품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가 따라야 할 성령의 열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서 이렇게 사랑하시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걸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 5. 사랑의 위조품과 반대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랑함과 좋아함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아함은 감정의 차원입니다. 그러나 사랑함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함은 의지의 차원입니다.

부부 관계를 예로 들어봅시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생깁니다. 자녀가 밤새 울다. 열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돌봅니다. 덤덤하고 하면 부채질을 합니다. 춥다고 하면 자기 이불을 기꺼이 자녀에게 덮어줍니다. 배가 아프다고 하면 아랫배를 만져주며 간호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감정입니까? 아니죠. 물론 감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은 분명합니다. 섬김입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합니다. 그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는 이와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 사랑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외모와 몸매로 인해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결혼 후 아이에게 신경을 쓰다 보면, 이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이전과 동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가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식었다 혹은 사랑이 변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감정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성경적 진리이지만, 부부의 사랑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랑은 수고입니다. 섬김입니다. 내가 배우자를 위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 2. 사랑-두려움을 이기는 성품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부간의 사랑은 점점 그 깊이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랑이 감정이라면, 그 반대말이 미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랑은 의지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진정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기적인 목적으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면,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비싼 보석, 명품, 돈, 이와 같은 소유물이나, 내 명예나 욕망에 대한 소유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별로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개방하고 누군가를 위해 섬기게 되면,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을까, 내가 아플까, 내가 희생을 할까,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두려움을 물리친다**고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남을 이용하여 내 유익을 구하는 가짜 사랑이 아니라,**

## 2. 사랑-두려움을 이기는 성품

내가 손해보고 희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진짜배기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라.